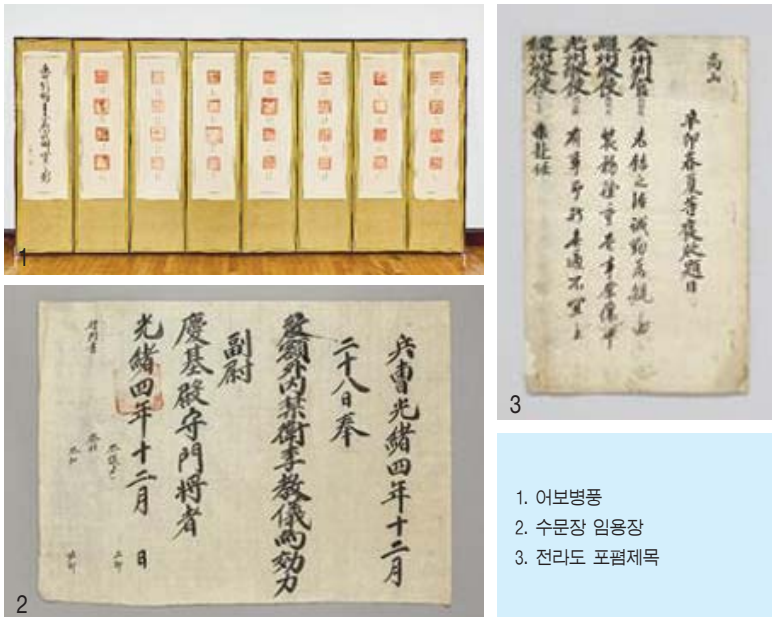


▶ 전주역사박물관, 신소장품 특별전 **전주 예찬**

후백제의 왕도 | 조선왕실 본향 | **전라도 문명의 중심지**

전주는 후백제의 왕도였고 조선왕실의 본향이었다.
전라도 일도를 통괄하는 전라감영이 설치되어 전라도의 수부로서의 역할을 다했고, 전라도의 풍부한 경제적 기반과 어우러져 조선의 3대 도시로 자리했다.
고려시대에도 전라도 안찰사영이 전주에 설치되어 전라도를 대표하는 위치에 있었다. 이는 전주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거점으로서 전라도의 문명을 형성하는 배경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풍패지향·온고을
호남제일성 등 구성
유물 50여점 선보여
12월 25일까지 전시



1. 어보병풍
2. 수문장 임용장
3. 전라도 포패제목

전주역사박물관(관장 이흥희)은 신소장품 특별전 '전주 예찬'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새롭게 확보된 박물관 소장품 가운데 전주의 대표적 역사·문화를 간직한 유물을 선별해 소개하는 자리다.

전시는 풍패지향, 온고을, 호남제일성, 예향 등 총 4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50여점의 유물을 소개한다. 전시와 연계해 '태조어보 찍어보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

'풍패지향'에서는 어보병풍과 경기전수문장 임용장을 비롯해 조선왕조의 발상지 전주를 담은 유물들이 전시된다. 어보병풍은 태조어보를 비롯해 종묘에 모셔진 역대 임금들의 어보를 찍어서 8쪽 병풍으로 만든 것이다.

경기전 수문장 임용장은 처음 보는 유물이다. 지금까지 경기전과 조경묘에 수문장이 배치되었음이 기록은 전해졌으나 수문장 임용장은 처음 나온 것이다. 이 임용장을 통해 경기전에 수문장이 배치되었음이 분명하게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온고을 전주'에선 사람살기 좋은 땅 전주의 옛 풍경을 담은 일제강점기 사진엽서와, 1971년 전주를 담은 사진들로 꾸며져 전주의 지난 날을 회상해 볼 수 있다. 1971년의 호남고속도로와 비행장, 풍남제 시가행진, 한옥마을 전경, 전주시정의 표어 등은 반세기 전의 전주를 새롭게 전한다. 특히 송천동 비행장 사진이 시선을 끄는데 그때만 해도 비행장이 있고 대한항공 민항기가 떴다.

또한 전라도를 총괄한 전라감영 자료와 유

물이 전시되는 '호남제일성 전주'는 전라감사가 도내 수령을 비롯해 지방관들의 근무성적을 평가한 포패문서가 흥미롭다. 1817년 전라감사 이호준이 평가한 것으로 전주관민민치준에 대해서는 노련하게 정치하고, 성실하고 근면함이 모범이 된다고 하여 상으로 평가하였다. 나주목사는 일을 꾸미는 것은 장중한 데 제대로 일처리를 못한다고 하여 중을 주었다. 포패는 6개월마다 치적을 8자로 평하여 상중하 세단계로 성적을 내어,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감영의 정문 포정루에 높이 걸여두었다.

관청일하기책은 정축년 정월 한 달 동안 관청에서 식비로 나간 돈을 품명과 함께 일자별로 기록한 것이다. 음식문화를 추적해 가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1일 것을 보면 아침·저녁 진지로 쌀 2되, 간장 4홉, 참기름 4작, 소고기 반근에 반근이 제공되고 있다. 소고기는 아침은 편육이고 저녁은 참기름, 계란 1개와 함께 전골로 제공되고 있다. 매끼 쌀과 함께 간장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도 흥미롭다.

'예향 전주'에서는 한지 공예품과 목공예품 등을 전시한다. 전주는 한지의 본가로 많은 길 좋은 한지가 생산되었을 뿐 아니라 부호들이 많아서 목가구도 많이 제작되고 빼어났다. 지승 표주박과 갯반, 샷갯, 지함, 팔걸이, 교지함 등을 만날 수 있다. 인두화 병풍도 전시되는데 인두로 한지에 그림을 그린 것으로 종이 가 타버리지 않는 것이 이채롭다.

전시는 12월 25일까지. /정해은 기자



피아니스트 조성진 전주공연 내년 1월에

내년 1월 13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 무대에 오르는 피아니스트 조성진.

쇼팽 콩쿠르 이후 서울과 통영, 대구에서 공연이 있었지만 전국 주요 도시에서 동시에 공연을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전국 투어의 프로그램은 베토벤 소나타로 시작한다. 그가 과거 인터뷰에서 좋아한다고 밝혔던 8번과 30번으로 베토벤 초기와 후기 작품을 나란히 배치했다. 한 평론가는 "베토벤 소나타 30번에서 조성진은 폭넓은 피아니즘을 마음껏 드러냈다. 감탄을 자아내는 테크닉 외에도 곡의 분위기와 구성에 대한 놀라운 정교함이 인상적"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2부에선 그의 새 앨범 수록곡인 드뷔시 영상 2집을 만날 수 있다. 조성진은 "파리에서 배우고 느낀 것을 잘 담아낼 수 있는 곡이기 때문"이라며 드뷔시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공연의 대미를 장식할 곡은 쇼팽 피아노 소나타 3번. 아직까지 공식 석상에서 연주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연주될지 궁금한 선곡이다. 그의 첫 전국투어 콘서트 베토벤, 드뷔시 그리고 쇼팽의 전주 티켓 예매는 오는 7일 오전 11시부터 한국소리문화의전당 홈페이지와 인터파크 티켓을 통해 진행된다. /정해은 기자

"살다보니 이런 날이 있을 줄이야"

"나 참, 오래 살다보니 이렇게 기쁜 날도 있네요!"

(재)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은 예술선물배달 '웃어요 전주'를 통해 전주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들의 자택에 방문하여 작지만 아름다운 예술을 선물했다.

'웃어요 전주'는 지난 두 달 동안 전주시 7개 동, 20명의 독거어르신을 찾아 공연·시각예술 분야의 선물배달부들(공연 16명·초상화 3명)로 하여금 독거어르신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웠다.

재단 장 걸 사무국장은 "첫 활동을 시작하기 전까지 독거어르신에게 지역 문화 예술인들의 온기를 전달 할 수 있을지 반



전주문화재단 '웃어요 전주' 독거노인에게 예술선물 전달

신반의 했으나, 독거어르신들의 미소와 생활관리사의 만족감, 예술선물배달부가 느끼는 뿌듯함을 지켜보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느꼈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에 함께 참여한 전주시생활관리사는 "평소 독거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다양하지만 그분들을 모두 모시고 갈 수 없는 환경이라 아쉬움이 많았다"며, "웃어요 전주를 통해 이쁨이 어려운 어르

신들까지 문화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어서 뿌듯했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전주시립국악단 정기연주회 '공간이동', 8일 소리문화전당서

전주시립국악단은 제21회 정기연주회 '공간이동'을 오는 8일 오후 7시30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주홀에서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7년 공연예술 창작산실 관현악 지속연주지원' 사업에 선정돼 공연비 일부를 지원받아 진행된다. 이 사업은 국내 클래식 작곡가에 의해 창작되어 초연된 작품이 지속적으로 연주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여느 때와는 다른 풍성한 무대를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연 프로그램은 총 4곡으로 구성된다. 첫 곡은 황호준의 '관현악 공간이동'이다.

이는 '안어울림' '부딪힘' '붙임'을 통한 음향적 효과와 음의 '발생' 시점 중심이 아닌 '지속'과 '소멸' 시점에 적용되는 한국적 아티클레이션(시김새)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방식의 관현악법을 구현하기 위해 작곡된 작품이다. 곡은 어느 새벽녘에 잠이 안와 메모장에 낙서하듯 끄적거렸던 독백을 음악적 이미지로 삼았다.

이어지는 곡은 관현악 지속연주지원사업에 선정된 김대성 작곡의 '해금과 국악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1번 율희'이다. 곡은 삶을 통해 율희의 원리와 업에 의한 순환 등을 느끼바 있는 수행자의 고뇌·환희 등을 표현한다. 해금 협연은 서울대를 졸업하고, 현재 국립국악원 정악단 해금수석으로 근무하고 있는 고수영 씨가 맡는다.

사업에 선정된 또 다른 한 곡 '산조야쟁과 국악관현악을 위한 와운'은 조선시대 문인화



가 이인상의 그림, '와운' 즉 소용돌이 구름을 주제로 한다.

이 작품의 산조야쟁은 산조 연주를 위한 것이 아닌 악기의 폭넓은 농현과 강렬하며 애절한 가락으로 그림에 내포된 비장한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다.

작품의 전개는 화가의 내면세계를 시각적 장면표사로 풀어가고 있다. 곡은 회화의 수묵 기법 안에서 절제된 미를 추구하며 전통악기 색채와 현대적 음악구조와의 접목을 시도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아쟁협연에는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하고, 전주대시습놀이 대회 및 다수의 대회에서 수상경력을 자랑하며 현재 국립국악관현악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은지 씨가 나선다.

공연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곡은 박범훈 곡 '관현악을 위한 뱃노래'다. 이는 경기민요인 '뱃노래'를 테마로, 뜻을 올리고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분위기를 표현한 곡이다.

연주회는 박천지 지휘로 화려하게 공연되며, 국악방송중계신청에 선정되어 라이브로 중계될 예정이다. /정해은 기자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자동차 이젠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대표 이영근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